"넘치는 에너지, 수행으로 中道 찾아요"

Interview

정효정 낭만씨어터 단장



"B급이 좋아요. 재밌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하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A급을 찾는 시대, 당당하게 'B급 애정'을 드러내는 이가 있다. 대중의 기대가 없는 동시에 부담도 없기 때문이라지만 우스갯소리일 뿐, 주목받지 못한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그녀만의 'B급 품격'이다. 이처럼 엉뚱하고도 재기발랄한 정효정(30) 낭만씨어터 단장을 2월 6일 서울 역삼동 아이액터스 스튜디오서 만났다.

"B급이라고 해서 하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메이저가 아닐 뿐 고정적인 프레임을 벗어난 범주죠. 도전적이면서도 참신해요. 정해진 틀이 없으니 훨씬 자유로워요."

지난해 9월 뮤지컬 프로젝트 그룹 낭만씨어터를 창단한 것도 다양한 예술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써놓은 로맨스극에 출연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하고 싶은 연극과 음악을 직접 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다.

이에 낭만씨어터 창단 후 처음 기획한 공연도 평소 열렬한 팬이었던 기형도 시인의 작품들을 주제로 한 음악낭독극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였다. 작곡에는 김서영 작곡가와 함께 이종만 좋은벗풍경 소리 실장, 보경 스님이 참여했다. 넉넉지 않은 자금 사정으로 공연을 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무보수로 선뜻 곡을 내어준 지인들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란 작품을 읽고 매료됐어요. 시에서 풍겨지는 쓸쓸함과 회색빛 느낌이 당시 제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기형도 시인의 작품을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 빚을 갚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해요(웃음)."

올해 준비 중인 공연도 그녀만의 색깔이 확실하다. 제목만 듣고는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절로 호기심이 생긴다.

조계사 청년회 · 찬불열창대회 대상도
'라이어2', '모던걸 백년사' 등 작품
다양한 예술하려 지난해 직접 창단
여성 · 인간심리 주제 작품 계획

"10월쯤 여성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세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음의 범죄'란 작품을 할 거에요. 또 상반기엔 음악낭독극을 함께했던 김서영 작곡가와 함께 인간의 심리를 소재로 한 음악극도 계획 중이에요."

그녀는 인하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극 '라이어2',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지금 여기, 엘렉트라' 등에 출연한 바 있다. 그런데 연극 뿐 아니라 음악에도 잔뼈가 굵다.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서 학생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으며,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모던걸 백년사', '고래의 꿈' 등에 참여했다.

특히 2015년 찬불가 열창대회서 폭발적인 성량으로 주목받으며 대상의 쾌거를 거머쥐기도 했다. 당시 폐암 4기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에게 드린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주변 분들의 권유로 욕심 없이 나갔는데 큰 상을 받았어요. 가수를 꿈꾸셨던 아버지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성량을 물려주셨죠.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더 행복했습니다."

찬불가는 그녀에게 음악이기 전에 위로다. 조계사 청년회 '소리마루 합창단'에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다. 유달리 큰 성량 때문에 반야심경을 낭독하거나 찬불가를 부를 때 애정 섞인 핀잔(?)을 듣기도 했지만, 혼자 노래할 때보다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하는 순간이 더없이 행복하다.

2013년 1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참여한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여느 20대 청춘들이 그러하듯 쓰라린 실연의 아픔을 겪으며 불교에 의지했던 그녀가 단기출가학교에 입하며 완전한 불자로 들어섰다. 여성은 삭발이 선택이었는데 그녀는 연극 오디션을 앞두고도 삭발을 감행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꾸준히 위빠사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여러 수행법이 있지만 저한테는 위빠사나 수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엔 선무도도 배우고 있어요. 수행은 연극과 음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지나치게 밝은 편인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줘요."

그녀의 꿈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자신의 삶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고통의 연속인 윤회서 벗어나는 게 인생 목표라고. '우음(雨音)'이란 법명처럼 사람들 마음을 촉촉이 적시는 빗소리와 같은 음악을 펼칠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서울불교박람회, 무료관람접수 'START'

3월 23~26일 학여울역 SETEC서

오는 3월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무료관람을 위한 사전접수를 받는다.

3월 23~26일 서울 학여울역 SETEC서 개최되는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개막에 앞서 사전관람객 등록 접수를 실시한다. 올해는 △사찰음식존 △수공예장터 △전통문화우수상품 수상작 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밖에 선재 · 월호 · 혜민 스님 등의 법문과 함께 사찰불화 전문가 강소연 박사의 북콘서트, 다례시연, 선화퍼포먼스, 미리 보는 연등회 등도 진행된다.

불교박람회 사무국 측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만큼 많은 불자들의 결집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무료관람 신청은 3월 17일까지 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bexpo.kr)서 가능하며, 10인 이상 단체관람 신청시 기념품과 함께 붓다아트페스티벌 투어프로그램, 단체사진 촬영권이 제공된다. (02)2231-2013

박아름 기자

탑골미술관 소장작품 바자회

3월 15일까지 동양화 등 90여점 판매

탑골미술관이 소장작품 바자회를 개최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2월 9일~3월 15일 동양화 · 판화 · 유화 등 지역사회 및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미술작품 90여점을 전시, 소장을 원하는 관람객들에게 판매한다.

이번 전시는 2015년에 이어 2번째로, 어르신들의 작품구매 문의 증가로 특별히 마련됐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시향유교육 '그림애 호가로 가는 길'이 열린다. 미술작품을 더욱 깊게 즐길 수 있도록 감상법을 배우고, 미술품 소장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3월 7일 오후 1시 30분엔 소장작품 중 최고 감정가 작품 3점에 대한 경매도 진행된다.

관장 희유 스님은 "오늘날엔 먹는 것뿐 아니라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풍요가 중요한 삶의 화두"라며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어르신들 및 다양한 세대가 미술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판매수익금은 전액 탑골미술관 운영기금으로 조성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이용은 1번째 개인전 '스물일곱, 꽃끼리패'

2월 17~25일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2월 17~25일 이용은 신인작가의 1번째 개인전 '스물일곱, 꽃끼리패'를 진행한다.

이용은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화려한 분채와 석채의 색에 길들여진 기존 수묵의 세계서 슬그머니 벗어나 '주름과 유지(油紙)'를 선택했다. 세월의 흐름을 상징하는 주름을 잘 표현키 위해 처음부터 종이를 구긴 후 먹물을 들였다. 종이 주름에 따라 달라지는 먹의 농도와 흐름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새로이 보인다는 평이다.



황금코끼리, 이용은作

이처럼 세월의 흐름을 상징하는 주름을 모티브로 거대한 동물인 코끼리를 표현, 총 13작품을 소개한다. 특히 수묵으로 우직한 코끼리를 그리고 상아와 날개를 금박으로 장식한 '꽃끼리'란 작품이 눈에 띈다.

불일미술관 측은 "27살 젊은 불자 작가 이용은에게 한국화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난공불락일지 모르나, 거대한 한국화 담론을 넘기 위해 우직한 코끼리처럼 한걸음씩 헤쳐 간다면 분명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유망작가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이용은 작가는 선화예술고를 졸업, 동국대 및 동대 대학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2012년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 전시를 시작으로 2013년 대구아트페어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대구박물관, 흙에서 찾은 불상展

9월 10일까지 예천 남본리유적 출토 소조나한상 등

국립대구박물관이 '흙에서 찾은 불상展'을 마련한다. 2월 7일~9월 10일 진행되는 이번 테마전시에선 소조불상 4점 및 동제불상 2점이 전시된다.

소조불상은 경북 예천 남본리유적 발굴조사서 출토된 것으로, 개심사지 오층석탑(보물 제53호)서 남서쪽 1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과거 개심사 내 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조나한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제불상은 경북 영양군 산해리 하천변에서 지역민에 의해 발견됐다.



예천 남본리유적 출토 소조 나한상.



영양 산해리 출토 동제 나한상.

국립대구박물관 측은 "소조불상은 점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번 전시가 우리나라 불교조각을 이해하고 제작기법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053)760-8542

박아름 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